

---

# 2020년 제49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0. 11. 27. ~ 12. 3.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11. 27.	시청률	0.101

### 【총 평】

“인공지능 국가전략 1년, 디지털 뉴딜 성과 창출 연계방안은?”은 ‘인공전략 기본 구상 및 국가전략 수립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디지털 뉴딜 사업과 연계한 미래 산업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자세하게 다루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요 산업인 비대면 산업육성, 인공지능 산업의 융합, 디지털 산업의 연관관계와 2030년까지 정부의 추진 계획 등을 정리해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였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대신하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인공지능의 역할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 인간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윤리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을 알려주었다. 또, 차세대 인공지능과 더불어 합리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했다.

### 【구성 및 내용】

“인공지능 국가전략 1년, 디지털 뉴딜 성과 창출 연계방안은?”은 인간의 지적인 기능까지 수행하는 인공지능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해결사로 부각되었고, 우리 정부도 1년 전부터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내세워 디지털 뉴딜 성과, 산업과 사회 모든 영역에 패러다임 변화, 경제 창출 연계방안까지 모색하여 빛을 발하고 있다는 점을 잘 담아냈다. 인공지능 국가전략 1년이라는 대주제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속에서 방역 인력의 업무 경감과 확진자 조기 발견 등, 인공지능 실적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시청자 이해를 도왔다.

특히,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 계획, 데이터 3법 개선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수립, 인공지능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보완한 육성 계획, 한국형 뉴딜 속 디지털 뉴딜과 인공지능의 연계 산업과 주요 과제, 빅 데이터와 정부 클라우드 사업, 디지털 뉴딜과 인공지능 연관성 등 정부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었다.

인공지능과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윤리성이 강조되었고 인간을 대신할 인공지능이 우리생활의 많은 부분에 밀착할 것이 예고되었다. 또, 4차혁명으로 인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이 전개가 될 지라도 인간 본연의 인간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전달했다.

특히, 디지털 뉴딜에 있어서 인공지능 산업분야와 융합하기 위해 전 국민의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교육구조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을 통한 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추진 계획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핵심! 경제가이드’에서는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목표와 전 산업의 인공지능 융합 확산 계획에 대해 살펴보았다. ‘알뜰신잡’에서는 “항생제 내성 예방법”을 소개했다. 계절성 질병 확산으로 항생제 복용이 많은 이 시점에 항생제 위험성, 국가별 인체 항생제 사용량, 감기환자에게 부적절한 항생제 처방, 항생제 내성 기본 예방수칙을 소개하여 항생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였다.

프로그램	KTV 대한뉴스		
방송일자	2020. 11. 27.	시청률	0.019

### 【총 평】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이틀째 500명 대를 넘어섬에 따라 신규 확진자 수 증가, 병상 차질 우려, 긴급 돌봄 제공,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개정 등 관련뉴스를 깊이 있게 중점뉴스로 다루었다. '유용화의 오늘의 눈'에서는 '3차 재난 지원금 논의'를 다뤄 피해계층 대상 선별지급의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이 밖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의무 거주기간, 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 성과 등 경제관련 뉴스를 집중 배치했으며, 극단적 선택자 유족을 대상으로한 심리부검 면담분석 결과를 통해 자살위험요인과 유족의 영향 등을 분석하고 정부의 자살 예방대책을 소개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인공지능 발전전략을 들어보는 가상대담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1조 투자방침과 인공지능 인력 양성 계획 등을 알려주었다. '클릭K'에서는 '밤하늘의 별, 드론 쇼의 모든 것'을 흥미롭게 펼쳐 흡인력을 높이고 정부의 4차산업 육성 차원에서 드론산업 육성 방안을 소개했다.

###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와 관련해 '하루 1천명 확진, 현실 될 수도' 등 발생현황과 정부의 대책 등을 심층 보도했다. 확산세가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적절한 대응이었고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동참을 재차 강조하며 이런 추세를 막지 못할 경우 하루 1천 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2050 탄소중립 전략회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등 이슈가 되고 있는 토픽을 분야별로 꼼꼼하게 점검했다. 문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한국의 강점인 디지털, 그린이 접목되면 탄소중립 사회의 전환이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입체적으로 분석한 심층적인 뉴스가 많았던 점이 인상적이었다.

'가상대담'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공지능 반도체 1조 투자 대담'으로 인공지능은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 4차 산업의 핵심기술로 향후 IT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박성호 기자의 자연스러운 진행과 잘 짜인 구성에 따른 빈틈없는 편집이 특징적이었는데 이전의 '오늘의 브리핑'에 비하면 전달력이 한결 더 살아나는 효과가 있었다.

'클릭K'는 우선 박천영 기자의 신박한 진행이 특징이고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의 진행자 같은 풍부한 표현력도 눈길을 끌었고 내용을 풀어나가는 방식도 체계적이어서 정보를 쉽게 전달했다. 드론의 경우 기본적인 정보에서 출발해서 지난 11월13일에 있었던 드론쇼, 그리고 드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이야기까지 단계적으로 내용을 풀어내 종합적으로 가공했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11. 27.	시청률	0.002

### 【총 평】

국민리포트는 최근 취재 아이템 기획에 있어 일정한 방향성이 보이고 시의적인 흐름을 잘 잡아내고 있다. 특히,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의미 있는 움직임과 작은 변화들을 찾아내서 모두의 관심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시도가 희망적이다. 특히, 일회용 용기 급증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비롯해 무인 주문 확산 대응, 온라인으로 해외시장 개척, 한국산 방역용품 수출 활기 등을 다각도로 다룬 점이 탁월했다. 언택트 시대 코로나19로 빚어지는 사회현상을 뉴스 소재로 선정해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정책 인터뷰 '열린소통포럼' 성과와 과제는 한 해를 마감하는 내용으로 국민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직접 정책으로 반영되는 점을 알려 국민참여 순기능을 널리 부각시켰다.

### 【구성 및 내용】

일회용품 분리배출과 K-방역물품의 호주진출, 중소기업의 온라인 상담 등 코로나로 비롯된 사안들, 그리고 환경문제와 김장 나눔행사 등을 다루었다.

'일회용 배달음식 용기 분리배출 엉망'과 '알맹이만 바꿔 쓰는 착한 소비, 환경이 살아나요'은 내용연계가 잘 이뤄져 '환경보호'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 나머지 아이템들도 시의적인 흐름을 잘 반영해 모두가 관심을 가질만한 정보를 담아냈다. 특히, 배달음식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배출되는 현상을 여실히 보여줘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고 분리배출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좋았다. 뒤이어 '제로 웨이스트숍'에서 벌이고 있는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면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실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앞선 플라스틱 용기 배출문제와 잘 어우러져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무인 주문 '키오스크' 확산, 노령층 '디지털 소외' 해결한다는 '키오스크'가 일반화되면서 비대면 결제가 늘어나는 현상과 함께 노령층 디지털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 운영 프로그램까지 소개해 완성도를 높였다.

'홍보에서 수출까지, 온라인으로 해외 시장 개척'은 코로나19로 중소기업들은 해외 시장 개척이 힘든 상황에서 중소기업벤처부의 수출지원서비스인 온라인 화상상담 서비스를 소개했는데, 중소기업의 이용만족도가 높다.

'대학생 김장 봉사, 쪽방촌 어르신께 전달'은 겨울철 소외된 쪽방촌 노인들을 위해 김장을 담그는 대학생들의 움직임을 취재했는데 상투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점이 좋았고, 특히 즐겁게 일을 하는 젊은이들의 표정과 몸놀림 위주로 묘사해 선선한 기분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었다. 마무리부분에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수능일에 대해 언급하고 필요한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전했다는데 적절한 대응이었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 소리		
방송일자	2020. 11. 28.	시청률	0.117

### 【총 평】

“늦가을 안성맞춤, 세월을 낚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이 피곤하고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전통 대나무 낚싯대 만들기, 호수에서 밤낚시 등을 통해 평온한 여유를 선사했다. 대나무의 고장 안성에서 전통 대나무 낚싯대 제조 명장을 찾아 전통의 명맥을 이어가는 힘든 과정과 대나무를 손질하는 소리, 호수에서의 개구리 울음소리, 소가 여물 먹는 소리, 낚싯터에서 컵라면 먹는 소리 등이 절묘하게 어우러졌다. 또, 늦가을 밤 호수에서의 밤낚시와 초겨울 아침 호숫가의 일출 장면이 코로나19로 힘든 우리생활도 아침을 맞을 것이라는 희망어린 은유로 다가왔다.

### 【구성 및 내용】

‘늦가을 안성맞춤, 세월을 낚다!’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의 길목에서 낚시로 세월을 낚는 모습을 담았다. 안성팜랜드에서의 계절의 모습, 대나무 낚싯대 작업장에서의 낚싯대 제작과정, 고삼호수에서의 낚시모습 등으로 구성했다.

지금은 남아도는 우유가 문제지만 우유 한 잔이 귀했던 시절이 불과 수십 년 전이다. 독일로부터 원조와 지원을 받아 우리나라의 현대식 낙농연구 및 산업이 처음 시작된 곳이 바로 안성이다. 지금은 여러 ‘가축’들을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계절마다 피는 꽃과 풀들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안성팜랜드를 소개했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안성팜랜드는 어느 덧 가을을 보내고 겨울 채비를 끝낸 초원에 핑크물리가 가득하다. 시민들이 다양한 가축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난 안성팜랜드. 이곳도 겨울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한데, 들판 곳곳도 겨울 풍경으로 거듭나고 있다.

안성의 가축농가를 소개하면서 “소가 여물을 먹는 소리”에 초점을 맞추고 “현대 도심의 소리보다 소 여물 먹는 소리를 들으면 안정감이 생긴다”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소리중에서 무척 이채롭고 신선하게 느껴져서 재미있었다.

안성시 보개면의 대나무 낚싯대 작업장을 찾아 낚싯대 명인을 만나 제조 과정을 살펴봤는데, 대나무 낚싯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도구가 필요하다. 3년 이상 건조시킨 대나무가 주재료로 초릿대 등 낚싯대 구성을 위해 다양한 굵기의 대나무가 필요해 전국 곳곳에서 대나무를 구하고 있다.

전통 대나무 낚싯대 제조 명장은 일본에서 대나무 낚싯대를 처음 접하고 난 뒤 국내로 돌아와 대나무 낚싯대 장인에게 취미로 전수를 받다가 현재에 이르렀는데, 초릿대 제작 등 어느 하나 쉬운 단계가 없다.

오래전에 낚시를 좋아했던 김승진씨의 밤낚시는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심야호수의 정취가, 시각적으로는 눈길을 끌고, 마음은 차분하게 안정시켜 주었다. 밤낚시에서 고기 한 마리를 건져올리지 못한 모습이 오히려 여운을 남겼다. 기다림의 미학이 떠오른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11. 28.	시청률	0.019

### 【총 평】

‘나우북(NOW 北)’은 11월 18일 KBS 9뉴스에 출연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 발언이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자세히 짚어보았다. 남북한 물밑접촉에 대한 외교관계의 흐름을 전하면서, 표면적인 남북외교보다 보이지 않는 물밑접촉 등의 외교를 통해 관계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임을 과거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제2의 남북관계 해빙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단박톡’은 ‘외국인 투자 유치로 알아보는 북한의 경제 상황 및 한반도 경제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 【구성 및 내용】

통일부가 왜 지금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지,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없는 이유,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남북 물밑접촉 중인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가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진단해 보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내건 다각적인 남북관계 개선 발언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남북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남북보건의로 협력 협의체 회의를 통해 접경지역에 ‘남북 감염병 대응센터’ 실현 방법을 모색 중이다. 마무리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과 남북간의 첫 물꼬를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으로 꼽은 점은 설득력이 있었다.

‘단박톡’에서는 “경제난 속 북한, 외국인 투자 유치 적극 유도과 미국 대선 이후의 북한의 경제 전망”을 OX 퀴즈 형식으로 살펴보았다. 코로나와 경제제재, 자연재해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절실한 형편인데 북한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과 제도를 살펴보고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우리의 투자 가능성, 북한에 전재산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는 짐 로저스의 발언과 북한에서의 성공 가능성 등을 가늠해 보았다. 북한이 헌법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는 부분은 1990년대부터 분변화의 바람으로 사회주의 헌법 37조에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장려해 북한의 27개 경제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주는 혜택이 있다.

국가의 승인만 받으면 한국인도 북한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부분은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도 외국인만큼 한국인의 제외하는 법적 제재는 없다. 현재까지 북한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는 중국이지만 현재는 강력해진 북한 경제제재로 중국의 투자율이 미미하다. 외국인이 투자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북한으로 유입시키는 것은 제재를 받고 있어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북한에 투자를 위해 유망한 사업으로는 관광사업 분야로 숙박시설과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의 관광산업 발전을 건설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북한주민들에게 생활필수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조업인데 자력갱생을 원하는 북한이 투자를 원하는 제조업 분야의 정보를 제공해 북한의 현실을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0. 11. 28.	시청률	0.006

## 【총 평】

충북 영동군의 신우재 구간의 노후된 도로의 선형 개량, 그리고 경남 김천시 남면의 야간 운전 시의 사고위험 저감시설 설치 민원의 해결과정을 전해주었다. 특히, 현장점검을 통해 민원을 파악하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잘 드러났다. 이 밖에 민원이 제기된 두 곳의 취재를 통해 실태-문제점-해결방안-과제 등을 짚어봄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이 지자체나 관련기관을 거쳐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고 주민 만족도와 사후관리는 어떤지를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주민과 지자체 행정의 순기능을 탐색한 기획이 뛰어났다.

## 【구성 및 내용】

최근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꾸불꾸불한 충북 영동 신우재 민원에 대해 지자체에서 선형 개선 추진에 나섰다는 내용과 추락위험이 높은 김천시 남면 도로변에 가드레일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 도로표지병을 설치키로 했다는 내용이 방송됨으로써 주민 민원이 반영돼 불편사항이 개선되는 과정이 제대로 전달돼 기획의도를 살렸다.

### ■ 꾸불꾸불 노후 도로 위험 충북 영동군, 선형 개량 나서

충북 영동군 신우재 구간은 오래된 도로로 꾸불꾸불하고 급커브가 많으며 양쪽으로 산이 있어 시야가 좁고 반대차선 차량을 빨리 발견하기 어려워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우회도로가 있지만 주민들은 신우재를 이용할 시 시간이 많이 단축되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인근 주민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속도제한 표지판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지난 해 제기했고 영동군청은 민원 접수 후 안전시설물을 곧바로 설치한 바 있다. 더불어 영동군은 급커브 구간의 선형개량 공사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 실시계획을 마치고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도로가 꾸불꾸불하고 급커브 내리막길이어서 최근에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충북 영동 상촌-황간 구간 도로의 문제점이 영상으로 생생하게 드러났고, 문제점을 설명하는 주민 인터뷰와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공무원의 인터뷰가 진정성이 느껴졌다.

### ■ 도로 안전시설 요청 민원

경북 김천시 남면의 도로에서 밤길 운전 시 갓길이 너무 좁아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가드레일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안전신문고에 접수된바 있다. 그러나 가드레일 설치 시 보수가 힘들고 특히 지하 매설된 통신, 가스관 파손이 우려되어 관계기관에 문의했지만 가드레일 설치가 어렵다고 하여 해당 공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시선 유도봉 등 다른 대안을 고려해보았지만 차선이 애초 좁고 대형차량이 많이 통행하므로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김천시는 올해 안으로 '도로표지병'을 조성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인터뷰에세이 그대의 꼭 한마디		
방송일자	2020. 11. 28.	시청률	0.005

### 【총 평】

과거 전문 방송인이었던 손미나 작가와 함께 ‘행복과 주체적인 내 삶’에 대한 공감 나눔 토크 “내 안으로의 여행”을 방송했다. 아나운서에서 여행가로 많은 책을 쓴 손미나 작가의 13번째 책 ‘어느 날, 마음이 불행하다고 말했다’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 너무 바쁘게만 살아야 성공한 삶으로 인식하고 반드시 의미있는 시간만 보내려는 우리들에게 울림을 주는 내용이었다. 유럽 언론에 코로나19 K-방역을 소개하여 화제가 된 손미나 작가, 그녀의 다양한 재능과 다부진 삶의 태도를 통해 위기에 대처하는 그녀만의 지혜를 프로그램에 잘 담아냈다. 잘남을 내보이려거나 남을 의식하는 삶이 아닌, 오롯이 나부터 사랑하며 더불어 살자는 손미나 씨의 정신과 마음, 몸에 대한 인터뷰는 시청자들에게 ‘현재’라는 선물을 안겨주었다.

‘인터뷰 에세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포함시켜 저자와의 인터뷰를 위한 목적성이 뚜렷해서 좋았고, 책이라는 소재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 【구성 및 내용】

손미나 작가는 아나운서 출신이라 인지도가 높아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좋은 메시지들을 전달해주어 기억에 남는다. 최근에 발간한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지만 굳이 그것이 아니어도 자신이 직접 겪은 마음의 불행감이나 그것을 극복해낸 사례가 솔직하게 다루어져 더 큰 공감과 위로를 주었다.

작가로서 변신하게 된 계기부터 시작해서 책의 제목처럼 어느 날 문득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 순간의 실제 경험담을 다루었으며 여행가로 변신하여 여행지에서 새롭게 느낀 점에 대해 토크를 나누었다. 쿠바와 코스타리카로 떠나서도 일종독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경험담도 굉장히 눈길을 끌었고 코스타리카에서 현지 주민들에게 배운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언급하는 대목이 아주 흥미진진했다. 내면의 자신과 마주하고 달라진 점과 자신과 화해하게 된 과정을 차례로 언급했고 불행한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내면의 외침, 나는 행복하지 않다’에서 항상 결과를 내야한다는 강박관념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다’에서는 쿠바와 코스타리카 여행에서의 깨달음으로 내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고 버려왔던 나 자신을 보살피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제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다”에서는 수시로 자신의 호흡과 정신의 흐름을 관찰해 보세요. 천천히 가도 된다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앞에 놓인 이 시간만큼 소중한 건 이 세상에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특히,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해 이해가 쉬워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릴만한 메시지가 많았다. 앞으로의 계획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11. 29.	시청률	0.084

### 【총 평】

‘그라비올라’ 효능으로 건강을 회복한 아버지와 아버지의 건강 때문에 귀농하게 된 딸의 귀농 사연을 “종합병원 아버지가 택한 그라비올라”에 담아냈다.

경북 성주군 금수면에 정착한 귀농한 부녀의 살뜰한 이야기와 함께 ‘그라비올라’라는 특용작물 재배와 그라비올라 토지 재배를 처음 시도한 부녀, 누군가의 방해로 인해 그라비올라 첫 농사에 실패한 이야기, 포도농사에 얽힌 사연,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이유 등 6차 생명산업에 도전하는 만능 엔터테인먼트 귀농 부녀의 인생 2막을 소개하였다. 금수면에서 60대 막내 소리를 듣는 60대 주인공의 호탕한 웃음과 삶 너머에 담긴 농사 철학, 3대가 함께 살며 농사에 대한 비전을 세운 딸의 귀농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삶의 목표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깨닫게 했다.

귀농 부녀의 희망적이고 도전적인 삶의 태도를 통해 인생은 살만한 이유가 있음을, 바보 같지만 바보가 아닌 인생임을 프로그램에 잘 녹여 냈다.

### 【구성 및 내용】

전체적인 구성은 아침풍경으로 시작했는데, 식사준비와 집 앞 청소로 아침을 시작하는 부녀와 손주의 모습을 담아냈다. 그라비올라 하우스로 이동하여 그라비올라를 재배하게 된 계기와 그 효능을 실제 경험담과 함께 소개했다. 이 밖에 그라비올라를 구매하러 온 손님과 동네 주민들이 등장해 귀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의 일상은 농사와 휴식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주로 담았고 동네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도 비중 있게 소개했다. 대구 EXCO를 부녀가 찾으며, 이론 작가의 꿈을 언급하며 마무리 했다.

부녀가 함께 귀농해 열매는 버리고 이파리만 쓰는, 브라질에서는 만병통치약으로 불린다는 특용작물 ‘그라비올라’를 재배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종합병원이라 할 정도로 아픈 곳 이 많은 아버지, 재택학습을 하는 아들과 함께 귀농해 이색적인 ‘그라비올라’라는 약용식 물과 포도 농사를 지으며 이웃과 소통하면서 사는 딸의 귀농생활이 이채로웠다.

심리학 박사’인 딸은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그라비올라 농사를 결심하고, 김포에서 포도 농장을 하던 아버지는 자연농법 전문가로 그라비올라와 함께 포도 농사에 전념하고 있다. 마을 평균 연령대 70세 이상, 마을 막내가 마을회관에서 삼계탕 파티라도 여는 날엔 동네 어르신들이 먹을 것을 들고 십시일반 찾아와 금세 동네잔치가 벌어지는데, 아버지는 동네 논 밭을 다 갈아주는 등, 동네 주민들과 소통에도 열심이다.

귀농 부녀는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재배부터 건조 포장까지 직접 담당한다. 최근에는 6차 산업 제품 개발과 샤인 머스캣이나 블랙사파이어 농사까지 도전하면서도 도시 문화생활을 농촌에 접목 시켜 농촌 지역을 새롭게 탈바꿈하려는 부녀의 노력들이 진실성 있게 와 닿았다.